

전북대, 일반인 대상 한옥 교육 '박차'

문화재청 생생문화재·향교·서원 활용사업 선정 우수 프로그램 선정돼 지원자 쇄도...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 교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교육 사업에 선정돼 그간 진행해온 교육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센터는 최근 문화재청이 공모한 2019년도 생생문화재 사업과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정음 김명관고택의 건축 이야기'와 고창의 '무장향교·무장읍성을 만나다' 프로그램이 동시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정음 김명관고택의 건축 이야기'는 올해로 3년째 선정돼 집중 프로그램으로 지원받게 되며, 고창의 '무장향교·무장읍성을 만나다'는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시작된다. 3년 연속 선정된 김명관고택의 건축 이야기는 시작 첫 해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은 우수 프로그램이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

육문화재체험관광프로그램으로 발굴, 운영해 일반 국민들에게 문화향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과거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던 향교·서원 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사회의 대표 문화재 활용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명관고택의 건축이야기 프로그램은 정음 김명관고택을 대상으로 건축이야기, 김명관고택의 한옥체험, 정음의 명품건축 답사, 김명관고택의 사진찍기, 김명관고택의 토론을 통한 생각 나누기, 문화재 보호활동 등으로 구성돼 하루 과정과 1박2일 과정으로 운영된다.

문화유산해설사와 인건문화재 제74호인 최기영 대목장, 전북대 남해경 교수 등이 참여해 한옥 건축의 다양성을 들려주고, 사랑채 한옥모형을 제작해 이 고택의 건축적 특징을 익히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무성서원과 피향정 등을 답사하면서 전북이 갖고 있는 우수한 건



김명관고택의 한옥체험.

축물과 정음의 문화유산을 살피고,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도 실시해 스스로 문화재를 지키는 자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좋은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참가자가 쇄도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때문에 이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물품을 정음과 고창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고, 교육생들의 식사는 마을 부녀회에 요청해 '엄마의 밥'이라는 컨셉으로

제공하고 있다. 숙박 역시 마을회관에 사용료를 지불해 이용하고 있고, 사업 필요 인력도 마을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남해경 교수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문화재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시키는 한편 문화재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고양 과목과 전공 체험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나'가 아닌 '우리'로 살기 위한 교육

도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워크숍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13일 한옥마을 일대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워크숍을 실시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전 지구적 관심사인 평화, 인권, 비폭력문화가 핵심가치이며 '나'가 아닌 '우리'로 살기 위한 교육으로서 인권, 평화, 상호존중, 문화다양성, 환경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도교육청은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하나인 공동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에 앞장 선 선도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세계시민 의식을 기르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경기전 등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활동 우수사례'를 나누며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수업 개선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수업실천 사례 나눔에는 조인석(익산 용북초), 최인선(전북 과학고), 표정현(완주 봉서초) 교사가, 시도 선도교사 수업 실천 사례는 전창환(전주 서천초), 박지웅(진안 안천초), 최운정(전주 서신중)교사가 참여한 다. 한편 세계시민교육 시도 선도교사 연구회는 '희망을 여행하라', '내 이름은 윤비', '물건 이야기'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계획과 실천 나눔을 이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지성이 나아갈 길은 결국 공동체역량을 강화하는 '세계시민의식'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수를 받은 선도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단순 공식 암기나 문제풀이가 아닌 지구촌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인드를 키워주는 세계시민교육을 뿌리 내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원임용시험 경쟁률... 공립 유치원 약 12대 1

전북교육청은 2019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원 임용시험의 최종 원서접수 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1일 2019학년도 공

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한 결과이다.

선발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

사의 경우 40명 모집에 464명 지원

으로 약 12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교대생들이 응시하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106명 모집에 202명 지원으로 약 1.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8학년도와 비교 유지원교사 11.7대 1, 초등교사 1.7대의 경쟁률을 보인데 비해 작년보다 약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의 알림마당, 시험/채용정보에서 초등임용시험 게시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혁신학교 전입교원 연수 실시

11일 전북교육청이 혁신학교 전입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연수는 지난 9월1일자 인사를 통해 혁신학교로 전입한 교장·교감 및 업무관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도교육청은 연수를 통해 전입 교원들의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혁신학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학생의 참학력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연수에서는 혁신학교 종류와 개념 등 기본 정보에서부터 전북지역 혁신학교 현황과 사례 공유, 혁신학교

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 참학력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교육과정 중심으로 혁신학교가 운영되며, 참학력은 기초교육과 미래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제별 분임토론 및 학교급별 간담회, 학교간 교류 시간을 마련해 혁신학교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는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의지가 강한 학교들"이라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혁신을 선도해 나가는데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독일·EU연구소, 전문가 초청 특강 마련

전북대학교 독일·EU연구소(소장 정초왕 교수)가 학부생들에게 독일어 관련 지역학 전문지식을 전하기 위해 해외 전문가 특강을 마련했다.

오는 16일 오후 3시 전북대 인문대 2호관 309호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에는 베를린 환경이카데미 대표인 고정희 박사가 강사로 나서 '독일의 도시재생과 정원박람회'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독일은 1865년 원예박람회로 출발한 이래 지금까지 160년 이상의 정원박람회 역사를 갖고 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국토 재건을 시작한 독일 국민들은 정원박람회를 통해 나무와 꽃을 심으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고, 이는 도시건설과 개발로 이어지며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정원박람

회가 하나로 묶여 구현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러한 정원 박람회와 도시재생의 관계를 되짚고, 2013년 함부르크와 2017년 베를린에서 각각 열렸던 국제정원박람회가 어떤 방식으로 도시 발전, 도시 재생과 연계돼 있는지를 소개한다.

고정희 박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줄이고, 사람과 환경을 이어 적응시기에 정원이나 공원처럼 적합한 곳은 없기 때문에 정원박람회는 도시가 던져 준 새로운 과제를 떠맡게 됐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정원박람회가 도시 재생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연계돼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제교류로 도내 대학의 역량 강화시킨다

중국 충칭시와 교육 협력

전북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전북도 자치행정국과 협력해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충칭시 교육위원회와 인문교육교류회를 진행하고, 교류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육 교류회는 전라북도과 전북대 등 도내 5개 대학(전주대, 우석대, 군산대, 원광대) 20여명이 참여했다. 충칭시 교육위원회에서 양 지역의 교육현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대학별로 충칭시내 6개 대학과 전북도 및 충칭교육위원회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류회 성과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교환학생, 교환교수, 공동 유학 박람회 개최 등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학들은 농생명, 문화, 관광, 식품, 자동차, 기계 등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우수학생 장학금 등 유학생 유치 협력 등을 적극 홍보해 중국 유학생 유치 및 교류에 주력했다.

전북도는 의사관공실, 교육위원회등에 도 홍보영상과 새만큼 쟁머리 개최 및 교육환경, 관광책자 등을 충칭시 관계자에 소개하면서 전북을 적극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양 지역 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공동 유학설명회 개최, 초·중등 및 대학 교류, 공동 연구 등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충칭시 대학 간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해 교류회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교류회 중국 측 대표인 이세옥(Li shiyu) 중경시 교육위원회 국제처장은 현재 중경시 국제교육교류에 대한 소개를 하며 한국 전북 지역과의 교육교류 협력을 통해 중의합작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해 한국과의 교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명숙 전북대 국제협력본부장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도내 대학의 국제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중국 지자체를 통한 고 중국 우수대학과 교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더욱 든든해진 농지연금으로 목돈 마련하시고 신바람 나는 노후설계하세요!



상담문의 | 1577-7770

